

2017년 국가직 7급 한국사 ㉔책형

해설 : 해동한국사 신영식 교수

1.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조는 이진아시왕이다. 그로부터 도설지왕까지 대략 16대 520년이다. 최치원이 지은 석이정전 을 살펴보면, 가야산신 정견모주가 천신 이비가지에게 감응되어 이 나라 왕 뇌질주인과 금관국왕 뇌질청예 두 사람을 낳았는데, 뇌질주인은 곧 이진아시왕의 별칭이고 뇌질청예는 수로왕의 별칭이라고 한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

- ① 5세기 후반부터 급성장해 가야의 주도 세력이 되었다.
- ②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을 대표적 문화유산으로 남겼다.
- ③ 시조는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와 혼인을 하였다고 전한다.
- ④ 전성기에는 지금의 전라북도 일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1. 정답 : ③

제시된 사료는 대가야의 건국 신화이다.

③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따르면 금관가야의 시조인 수로왕은 아유타국의 공주인 허황옥과 혼인하였다고 전해진다.

① 400년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왜구 격퇴 과정에서 금관가야가 축소되자, 이후 고령 지방의 대가야가 성장을 하여 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다. ②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의 대표적인 고분군에 해당하는 유적이다. ④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 무렵에 대가야는 서쪽으로 영토를 개척하여 소백산맥을 넘어 전라북도 남원·임실 지방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2. 고려와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려시대에는 제술업이 명경업보다 중시되어 그 합격자를 중용하였다.
ㄴ. 고려시대 국자감시는 국자감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이었다.
ㄷ. 조선시대에 잡과에 합격한 기술관은 해당 관청에서 최고 정3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ㄹ. 조선시대의 음서 대상도 고려시대와 동일하여 음서를 통하여 고위 관리까지 진출하였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 정답 : ①

ㄱ. 고려 시대 제술업은 한문학과 경전에 대한 이해와 한시와 문장을 짓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명경업은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였다. 제술업과 명경업은 양대업으로 불리며 중요시되었으나 그 중에서도 제술업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해서 관리들이 오르고 싶어 했던 청요직은 대부분 제술업 급제자의 차지였다. ㄴ. 조선 시대 잡과 합격자는 한품서용에 따라 정3품 하직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ㄷ. 국가감시는 중앙의 국학생과 12도생 중에 선발된 사람, 계수관시를 거친 향공 등이 응시하였다. ㄹ. 고려 시대의 음서는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에게 주어졌으며, 이들은 과거를 거치지 않아도 고관으로 승진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는 음서의 대상이 2품으로 축소되었고,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더라도 과거를 거치지 않으면 고관으로의 승진이 불가능하였다.

3. 다음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국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통상을 요구해 왔다. 이어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조선군의 결사 항전과 정부의 통상 거부로 미군은 결국 퇴각했다. 그러나 개항 이후 조선 정부도 수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권대관 신헌 등을 통해 미국과 (㉠)을(를) 체결하였다.

-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 ① 조선과 영국의 통상 조약 체결 이후 맺어졌다.
 - ② 양국의 무제한 유출, 무관세, 무항세 조항이 포함되었다.
 - ③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일본의 적극적인 알선과 중재로 체결되었다.
 - ④ 다른 나라의 압박을 받으면 거중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 있었다.

3. 정답 : ④

㉠은 1882년 4월 6일, 조선의 전권대신 신헌과 미국의 슈펠트 간에 체결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다.

④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는 일방이 제3국에 의해 강압적 대우를 받을 때 다른 일방이 이를 중재하기로 하는 ‘거중 조정’이 포함되어 있다.

① 조선과 영국 사이의 통상 조약은 1883년에 체결되었으므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조·영 조약 이전에 체결되었다. ② 양국의 무제한 유출, 무관세, 무항세 조항이 포함된 것은 1876년 7월 조선과 일본 간에 체결된 조·일 무역 규칙이다. ③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청의 알선과 중재로 체결되었다.

4. 밑줄 친 ‘이곳’에서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곳에서는 한인 집단 거주지인 신한촌이 형성되어 자치 기구와 학교가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이곳에서 이상설 등은 성명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벌였고, 이후 임시정부의 성격을 가진 대한국민의회가 전로한족회중앙총회로부터 개편 조직되었다.

<보 기>

- ㄱ. 권업회라는 독립운동 단체가 조직되었다.
- ㄴ.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흥강습소가 설치되었다.
- ㄷ.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되어 독립운동을 벌였다.
- ㄹ. 신규식, 박은식 등의 주도로 동제사가 조직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4. 정답 : ②

신한촌, 성명회, 대한 국민 의회 등이 창설된 곳은 '연해주'이다.

ㄱ. 권업회는 1911년 이범윤을 중심으로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조직된 한인 민단이다. ㄷ. 대한 광복군 정부는 1914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권업회 인사들이 만든 독립군 조직이다.

ㄴ. 신민회 계열의 인사인 이회영, 이상룡 등이 1911년 군인 양성을 위해 신흥 강습소(이후 신흥 무관 학교)를 설치한 것은 서간도의 삼원보이다. ㄹ. 동제사는 1912년 한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중국 상해에서 조직되었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5.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왕을 '형상' 또는 '대왕' 등으로 칭하였다.
- ② 모피, 우황, 구리, 말 등을 당나라에 수출하였다.
- ③ 상경(上京)은 당나라 도성을 본떠 조방(條坊)을 나누었다.
- ④ 중앙의 주요 관서에 각각 복수(複數)의 장관을 임명하였다.

5. 정답 : ④

④ 신라의 중앙 관부에 대한 내용이다. 신라는 집사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대부분의 장관(승)이나 차관(卿)을 복수(2~3인)로 임명하여, 귀족 가문을 배려함과 동시에 상호 견제하도록 하였다.

① 발해는 고려국을 표방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천손(天孫)임을 자랑하였고, 국왕을 '황상(皇上)', '대왕' 등으로 칭하였다. ② 발해는 당나라에 모피, 인삼, 우황, 불상, 자기 등을 수출하였고 특히 솔빈부의 말은 발해의 주요 수출품이었다. ③ 발해는 당의 도성 모습을 본떠 수도인 상경을 구획하였다. 황성 남문에서 외성 남문까지 일직선의 주작대로를 중심으로 좌경(左京)·우경(右京)으로 나누어 이것을 다시 여러 조방(條坊)으로 나누었다.

6. 다음은 조선시대 어느 관원의 일기에서 발췌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568년 : 광흥창에서 쌀 7섬, 콩 7섬, 명주베 1필, 삼베 3필을 받아왔다.
- 1568년 : 쌀 4섬 5되와 베 10필, 콩 2섬으로 이형이라는 사람의 밭을 샀다.
- 1569년 : 노비 석정이 와서 올해 논의 총 수확이 모두 83섬이라고 말했다.
- 1570년 : 이효원이 찾아와 호조에 속한 공장(工匠)이 만들어 파는 충정관(冲靜冠)의 구입을 권하였다.

- ① 이 관원은 녹봉을 광흥창에 가서 받았다.
- ② 이 관원이 이형에게 산 밭은 병작반수의 형태로 경작을 시킬 수 있었다.
- ③ 이 관원은 논의 총 수확 83섬의 10분의 1을 농민들로부터 수조할 수 있었다.
- ④ 이 관원은 관청에 소속된 공장들이 개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6. 정답 : ③

③ 명종 때인 1556년 직전법이 폐지되며 수조권 지급 관행이 폐지되고 관리들은 녹봉만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관원이 수조할 수 있는 수조지가 있다는 것은 틀린 내용이다.

① 광흥창은 조선 초기 고려 말의 광흥창을 계승하여 성립되어 모든 관원의 녹봉에 관한 일을 맡았다. ② 이 관원이 이형에게 사들인 토지는 이 관원의 사유지로서,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어 경작시키고 지대로 1/2을 받을 수 있었다(병작반수). ④ 조선 전기에는 기술자를 공장안에 등록시켜 서울과 지방의 각급 관청에 속하게 하고 관수품을 생산하게 하였으며, 양반들은 이들이 생산한 것을 구입할 수 있었다.

7. 신라 말 진성왕 대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견훤이 무진주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 ② 궁예가 국호 마진을 태봉으로 바꾸었다.
- ③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 ④ 양길이가 부하를 보내 명주 관함 군현을 공격하였다.

7. 정답 : ②

신라 하대 진성왕(진성 여왕)의 재위기는 887년부터 897년이다.

② 궁예가 국호를 마진에서 태봉으로 바꾼 것은 911년의 일이다.

① 견훤이 무진주를 도읍으로 왕으로 즉위한 것은 892년(진성 여왕 6)의 일이다. ③ 사벌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난은 889년(진성 여왕 3)의 일이다. ④ 양길이가 부하 궁예를 보내 명주를 공격한 것은 894년(진성 여왕 8)의 일이다.

8. 다음 글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형벌이 엄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 사람들을 노비로 삼았다. 도둑질을 하면 12배를 변상하게 하였다. …(중략)… 성책(城柵)의 축조는 모두 둥근 형태로 하는데, 마치 감옥과 같았다. …(중략)… 사람이 죽으면 여름철에는 모두 얼음을 사용하여 장사를 지냈다. …(중략)… 장사를 후하게 지냈으며, 괵(槨)은 사용하였으나 관(棺)은 쓰지 않았다.

- 삼국지 -

<보 기>

- ㄱ. 여섯 가축의 이름으로 관명을 정하였다.
- ㄴ. 국왕의 장례에는 옥갑(玉匣)을 사용하였다.
- ㄷ.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작은 창고를 갖고 있었다.
- ㄹ. 온 집안 식구들을 하나의 괵 속에 넣어 매장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8. 정답 : ①

도둑질 한 자는 12배로 배상하고, 사람이 죽으면 얼음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통해 '부여'임을 알 수 있다.

ㄱ.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따르면 부여의 최고 신분으로는 중앙에 왕이 있었고, 그 밑에 여섯 가축으로 이름을 정한 마가(馬加), 우가(牛加), 저가(豬加), 구가(狗加), 대사(大使), 대사자(大使者), 사자(使者) 등의 귀족이 있었다. ㄴ. 부여는 귀인(貴人)에 대한 순장 풍습이 있었으며, 특히 국왕의 장례 시에는 옥갑을 사용했고 금칠을 한 옥으로 만든 옷을 입혔다고 한다.

ㄷ. 피정복민에게 획득한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 지배 계층이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작은 창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다. ㄹ.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뼈를 추려 가족 공동묘에 안치하는 장례 풍습은 옥저에 대한 내용이다.

9. 밑줄 친 '이 내각'의 재정 개혁안으로 옳은 것은?

이 내각의 개혁 정책은 초정부적 비상 기구인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군국기무처에는 박정양, 유길준 등의 개화 인사들이 참여하여 개혁 정책을 결정하였다.

- ①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통할하도록 한다.
- ② 국가 재정을 탁지아문의 관할로 일원화시키도록 한다.
- ③ 궁내부 산하의 내장원에서 광산, 홍삼 사업 등의 재정을 관할하도록 한다.
- ④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한다.

9. 정답 : ②

초정부적 비상 기구인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한 것은 제1차 갑오개혁을 추진

한 제1차 김홍집 내각이다.

② 제1차 갑오개혁 때 재정적으로는 은 본위 제도, 조세의 금납화, 도량형 개편, 탁지아문을 통한 재정의 일원화를 시도하였다.

① 모든 재정을 호조에서 통할하도록 주장한 것은 1884년 갑신정변을 일으킨 개화당 정부의 14개조 개혁 정강의 내용이다. ③ 홍삼, 광산, 철도, 수리 사업 등을 내장원에서 관할하여 황실 재정을 강화하고자 한 것은 광무개혁의 내용이다. ④ 재정의 탁지부 관할과 예산·결산의 공포는 독립 협회가 발표한 ‘현의 6조’의 내용이다.

10. 사람의 문화를 반영한 16~17세기 그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이정의 풍죽도
- ② 심사정의 초충도
- ③ 어몽룡의 월매도
- ④ 황집중의 목포도도

10. 정답 : ②

② 심사정은 숙종에서 영조 연간에 활동했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화가로, 화훼(花卉)·초충(草蟲)을 비롯, 영모(翎毛)와 산수(山水)에도 뛰어났다.

①, ③, ④ 이정, 황집중, 어몽룡은 16세기에 활동하던 화가로, 각각 대나무, 포도, 매화를 잘 그려 삼절로 일컬어졌다.

11. 다음 기행문의 ㉠에서 출토한 유물로 적절한 것은?

며칠 전 나는 공주 시내에 있는 유적지를 둘러보았다. 가장 인상에 남는 곳은 송산리 고분군이었다. 그곳에는 (㉠)가(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전시관도 마련되어 있었다. (㉠)는(은) 연도(羨道)와 현실(玄室)을 아치형으로 조성한 벽돌 무덤이다. 이 무덤에서 금송(金松)으로 만든 왕과 왕비의 관(棺)을 비롯하여 많은 부장품을 출토하였다. 중국 남조 양나라나 왜와의 교류를 짐작케 하는 무덤이다.

- ① 무덤 안에 있는 여러 옷차림의 토우
- ② 무덤 안에 놓여 있는 왕과 왕비의 지석
- ③ 무덤 안의 네 벽면을 장식한 사신도 벽화
- ④ 무덤 주위를 둘러싼 돌에 새겨진 12지 신상

11. 정답 : ②

제시된 자료의 ㉠은 ‘벽돌 무덤’, ‘금송(金松)’ 등을 통해 ‘무령왕릉’임을 알 수 있다.

② 무령왕과 그 왕비가 묻힌 무령왕릉 안에서 발견된 2매의 지석은 왕과 왕비의 장례를 지낼 때 땅의 신에게 묘소로 쓸 땅을 사들인다는 문서[買地文]를 작성하여 그것을 돌에 새겨 넣은 매지권(買地券)으로, 1971년 무령왕릉이 발견될 때 함께 출토되었다. 왕의 지석은 표면에 세로줄 선을 음각하여 6행까지 52자의 명문을 음각으로 새겨 넣었으며, 왕비의 지석

① 인물 및 동물, 생활 용구 등을 본떠서 만든 토우(土偶)는 삼국 시대 신라와 가야의 고분에서 많이 출토되었다. ③ 공주 송산리 6호분에서 소박한 형태의 사신도와 일월도가 발견되었다. ④ 통일 신라 시대에 이르러 고분 양식이 굴식 돌방무덤으로 변화였다. 그리고 무덤의 봉토 주위를 돌레돌로 두르고, 그 돌레돌에 12지 신상을 조각하는 새로운 양식이 생겼는데, 이러한 통일 신라 시대의 묘제는 뒤에 고려, 조선 시대의 왕릉에까지 계승되었다.

- ㄱ.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 충청으로 이동하였다.
- ㄴ. 부주석제를 신설하여 김규식을 부주석으로 하였다.
- ㄷ.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를 한국광복군에 편입하였다.
- ㄹ.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 ㄱ.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 충칭으로 이동한 것은 1940년의 사실이다. ㄴ.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ㄷ. 1942년 중국 군사 위원회의 강력한 요구로 충칭에 남아 있던 조선 의용대를 비롯한 각지의 병력이 한국광복군에 합류하면서, 보다 강화된 정식 군대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ㄹ. 1944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5차 개헌을 통해 김구·김규식을 중심으로 주석·부주석제로 개편되었다.

그는 스스로 국공(國公)에 올라 왕태자와 동등한 예우를 받았으며 자신의 생일을 인수절(仁壽節)이라 칭하였다. 그는 남의 토지를 빼앗고 공공연히 뇌물을 받아 집에는 썩은 고기가 항상 수만 근이나 되었다.

- ② 인종대 정권을 잡았던 이자겸의 집안은 불교계와도 깊은 관계가 있었다. 즉 이자겸은 아들인 수좌 의장(義莊)을 현화사에 포진시키는 등 당시 경제·군사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던

사원세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그리고 인수 이씨 가문에서는 이자연의 아들인 금산사의 혜덕왕사 소현을 비롯하여, 손자인 현화사의 세량(世良), 청평거사 자현(資玄), 이자겸의 아들인 수좌 의장, 이자의의 아들인 홍왕사의 지소대사 등 3대에 걸쳐 5명의 승려를 배출하여 사원과의 유대관계를 긴밀히 하였다.

① 경계(庚癸)의 난은 대체로 정중부의 난이 경인년(1170)에 일어나고 김보당의 군사가 계사년(1173)에 일어났기에 부르는 명칭이다. ③. ④ 인종 집권기 서경 천도 운동을 주도했던 묘청에 대한 설명이다. 묘청은 고려가 금나라에 사대하고 이자겸의 난을 겪는 등 어려움에 처하게 된 원인이 개경의 지덕(地德)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라를 중흥시키려면 지덕이 왕성한 서경으로 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칭제 건원을 주장하며 금을 정복하자는 주장까지 하게 되었다.

14. 다음 글에 나타난 ‘무리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무리들이 번성한 지 벌써 십 년이 지났으나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번 양덕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그 무리들을 체포하려고 포위하였지만 끝내 잡지 못하였으니 역시 그 음흉함을 알 만하다. 지금 이영창의 심문 기록을 살펴보니 더욱 통탄스럽다.

- ① 양주 백정 출신인 임궽정을 중심으로 황해도에서 활동하였다.
- ② 장길산을 우두머리로 하여 황해도와 평안도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 ③ 실존 인물인 홍길동이 이 집단의 우두머리로 충청도에서 활동하였다.
- ④ 몰락 양반인 홍경래를 중심으로 영세농과 광산노동자 등이 가세하였다.

14.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17세기 숙종 재위기에 일어난 장길산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다. 숙종 14년 요승 여환 등 하층 평민, 노비 등 11인이 모반을 꾸미다 죽음을 당하였는데, 이들은 “석가불이 다하고 미륵불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미륵 신앙을 널리 퍼뜨렸다. 이들은 10여 년간 민중의 신망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투쟁해 오던 장길산 무장 세력과 연대하고자 했다. 여환은 거사 계획을 짜고 어려서부터 자기가 가르친 이영창(李榮昌)을 서울로 잠입시켜 조정의 동정과 정세를 정탐하게 하였다. 이러한 여환과 장길산의 혁명 모의는 이영창을 남인의 첩자로 의심한 서열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노론 세력에 붙어 혁명 세력을 배신·밀고함으로써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② 장길산은 숙종 대 산적 두목으로 유명했던 실존 인물이다. 그는 광대 출신으로 황해도, 평안도 양덕 일대에서 활약하였으며, 그에 대한 조정의 체포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장길산은 이후 행방을 감춰 버렸다. 홍길동이나 임궽정은 분명히 잡혔다는 기록이 있는데, 장길산에 대해선 그런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끝까지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① 임궽정의 난에 대한 설명으로 16세기에 발생한 민란 중 가장 대표적인 난으로, 임궽정은 명종 때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③ 홍길동은 조선 연산군 때 활동한 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선왕조실록과 몇몇 문헌에 행적이 간략히 적혀 있다. ④ 1811년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에 대한 설명이다.

15.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일성록	ㄴ. 난중일기
ㄷ. 비변사등록	ㄹ. 승정원일기
ㅁ. 한국의 유교책판	

- ① $\neg$, $\perp$
② $\neg$, $\perp$, $\sqsubset$
③ $\neg$, $\perp$, $\sqsubset$, $\Box$
④ $\neg$, $\perp$, $\sqsubset$, $\sqsubset$, $\Box$

15. 정답 : ③

③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된 것은 조선왕조실록(1997), 훈민정음(1997), 직지심체요절(2001), 승정원일기(2001),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 조선왕조의궤(2007), 동의보감(2009), 일성록(2011),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2011), 난중일기(2013), 새마을 운동 기록물(2013), 한국의 유교 책판(2015),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2015)이 있다. 비변사 등록은 세계 기록 유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16. 다음과 같이 주장한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의 학문은 안에서만 구할 뿐이고 밖에서는 구하지 않는다. ... (중략) ... 그런데 오늘날 주자를 말하는 자들로 말하면, 주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자를 빌리는 것이요, 주자를 빌릴 뿐만 아니라 곧 주자를 부회해서 자기들의 뜻을 성취하려 하고 주자를 끼고 위엄을 지어 자기들의 사욕을 달성하려 할 뿐이다.

- ① 양지와 양능의 본체성을 근거로 지행합일을 긍정하였다.
- ② 교조화된 주자학을 비판하다가 사문난적으로 몰리어 죽음을 당하였다.
- ③ 서인의 영수로서 왕과 사족·서민은 예가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④ 유교문명 이외에도 유럽·회교·불교 문명권을 소개하여 시야를 넓혀 주었다.

16.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하곡 정제두가 저술한 『존언』의 내용 중 일부이다.

① 정제두는 양지, 양응의 본체성을 근거로 지행합일을 긍정한 대표적 인물로서 처음에는 주자학을 공부하였으나, 뒤에 지식과 행동의 통일(지행합일)을 주장하는 양명학 연구에 전념하였다. 그는 양명학을 심즉리를 통해 하늘의 이치는 사람의 마음(心)에서 구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당시 양명학은 주류 사상계의 견제를 받던 학문이지만 정제두는 조선 최초로 양명학의 사상적 체계를 세웠고 그의 학백을 하곡학과 또는 강화학파로 부른다.

② 윤희는 주자와 다른 『중용』 해석을 시도하였는데, 이로써 노론 계열의 영수인 송시열에게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는 공격을 받았다. ③ 서인의 영수로서 왕과 사족, 서민은 예가 같아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은 송시열이다. ④ 『지봉유설』을 저술한 이수광에 대한 내용이다. 그는 실학을 최초로 이론화하였으며, 유럽 문명, 회교 문명, 불교 문명권이 있음을 소개하여 문화 인식의 폭을 확대하였다.

17.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일제는 중국 마적단을 매수하여 훈춘의 일본영사관을 공격하게 하는 조작 사건을 일으켰다.
- ㄴ. 서일을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은 소비에트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 ㄷ. 일제는 무장 독립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만주 군벌과 미쓰야 협정을 맺었다.
- ㄹ. 한국독립당의 산하에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독립군이 조직되었다.

- ① $\neg \rightarrow L \rightarrow C \rightarrow E$
② $L \rightarrow \neg \rightarrow E \rightarrow C$
③ $C \rightarrow E \rightarrow L \rightarrow \neg$
④ $E \rightarrow C \rightarrow \neg \rightarrow L$

17. 정답 : ①

ㄱ. 1920년 10월의 훈춘 사건에 대한 설명이다. 봉오동 전투에서 패한 일제는 군대를 파견하여 간도 지역의 조선 독립군을 토벌하고자 훈춘 사건을 조작하여 일으켰다. ㄴ. 청산리에서 대과당한 일본의 대대적 토벌 작전으로 인해 북로 군정서를 비롯한 대한 독립군, 대한 국민회, 대한 신민회, 도독부, 의군부 등의 독립군 부대는 북만주 밀산에 집결하여 통합 단체인 대한 독립군단을 결성(1920. 12)하고 러시아령 연해주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대한 독립군단은 일제의 눈을 피하기 위해 각기 소속 부대별로 이동하여 비교적 안전한 지대인 연해주의 이만(현재 달네레첸스크)에 집결하였다가 다시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ㄷ. 1923년에서 1925년에 걸쳐 만주 지역의 독립군이 육군 주만 참의부·정의부·신민부의 3부로 재정비되자 1925년 6월에 일제는 3부 중심의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하여 만주 군벌 장쥔린과 미쓰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ㄹ. 1930년 혁신 의회를 기반으로 지청천, 홍진 등에 의해 한국 독립당이 결성되었고 예하에 한국 독립군을 편성하였다.

18. 다음 상황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일본군이 경복궁을 습격하자 이에 전봉준은 삼례에 대도소를 설치하여 농민군의 삼례 집결을 도모하였고, 기병을 촉구하는 통문을 돌렸다. 통문에는 “이번 거사에 호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충무도(不忠無道)한 자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보 기>

- ㄱ. 농민군은 황토현에서 관군을 격파하였다.
- ㄴ. 정부와 농민군은 전주에서 화약을 맺었다.
- ㄷ. 북접군과 남접군이 논산에서 합류하여 집결하였다.
- ㄹ.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 연합부대를 맞아 격돌하였다.

- ① $\neg$, $\perp$
② $\neg$, $\top$
③ $\perp$, $\exists$
④ $\top$, $\exists$

18. 정답 : ④

1894년 6월 일본의 경복궁 침략 이후 일본의 조선 침략이 본격화되자 동학 농민군은 1894년 9월에 일본군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재봉기를 단행했다. 전봉준은 지세가 넓고 교통의 요지인 삼례에 대도소(人都所)를 정하고 농민군의 결집을 추진했다. 삼례에 집결한 4만여 명의 농민군은 총대장 전봉준과 손화중, 김덕명 등의 지휘를 받으면서 논산으로 북상해갔다.

ㄷ. 화평론을 주장했던 북접의 최시형도 반외세라는 명분을 받아들여 무력 투쟁을 지시함으로써,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의 농민군은 10월 9일에 강경에서 남접의 농민군과 합류하였다.

ㄹ. 충공세를 명령한 전봉준 등의 동학 농민군은 전열을 정비한 후 11월 공주 우금치에 집결하여 관군 및 일본군과 전투를 전개하였다.

ㄱ. 황토현 전투는 1894년 4월 7일의 사실이며, ㄴ. 농민군과 정부의 전주 화약 체결은 1894년 5월 8일의 사실이다.

19. 조선 후기 역사서에 나타나는 정통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상덕의 『동사회강』에서는 마한을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고 삼국을 무통으로 보았다.
- ② 안정복의 『동사강목』에서는 삼국을 무통으로 하고 단군-기자-마한-통일신라를 정통으로 하였다.
- ③ 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에서는 단군을 배제하고 기자-마한-통일신라의 흐름을 정통으로 규정하였다.
- ④ 홍여하의 『동국통감제강』에서는 기자의 전통이 마한을 거쳐 신라로 이어졌다고 하여 기자-마한-신라를 정통 국가로 내세웠다.

19. 정답 : ③

③ 홍만종은 『동국통감제강』에서 단군-기자-마한-삼국무통-통일신라-고려-조선으로 체계화하였다. 단군을 정통에 놓은 것은 삼교회통의 비강목체적 입장의 반영이며 삼국무통은 현실중시의 입장이다.

① 임상덕의 『동사회강』은 강목체 역사서로서 삼국무통-통일신라-통일고려로 체계화하였으며 마한을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삼국무통과 마한 부정은 현실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② 안정복은 『동사강목』에서 단군-기자-마한-삼국무통-통일신라-고려(통일 이후)로 체계화하였다. 삼국무통 역시 현실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④ 홍여하는 『동국통감제강』에서 기자-마한-신라를 정통으로 하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마한을 정통으로 한 것은 명분론의 강조이다.

20.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950. 6	1950. 9	1951. 1	1951. 6	1953. 7
		(가)		
6·25 전쟁 발발	서울 수복	1·4 후퇴	휴전회담 시작	정전협정 체결

- ① 대규모 해상 작전인 흥남 철수가 이루어졌다.
- ② 이승만 정부가 반공 포로의 석방을 단행하였다.
- ③ 맥아더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관직에서 해임되었다.
- ④ 미국은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선언하였다.

20. 정답 : ①

① 1950년 9월 15일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곧바로 서울을 수복하고 10월에는 평양을 함락하고 압록강에 이르렀으며, 11월에는 두만강 일대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의 만주 진격을 우려한 중국군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다. 예상치 못한 중국군의 반격에 국군과 유엔군은 38선 이북에서 대대적 철수를 계획하였다. 1950년 1월 동부전선의 국군 12만 명과 피난민 10만 명이 흥남 부두에서 해상으로 철수하였다.

② 1953년 6월에는 휴전에 반대하였던 이승만 정권이 2만 5,000여 명에 이르는 반공 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하여 휴전 회담 자체가 결렬될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③ 1950년 11월 중국군의 전쟁 참여 이후 맥아더는 ‘만주 폭격’, ‘핵폭탄 사용’ 등을 주장하였으나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맥아더의 주장을 거부하였다. 이처럼 전쟁 작전 수행을 둘러싸고 맥아더와 미국 합동 참모 본부 및 트루먼 미국 대통령과의 대립이 깊어졌고, 결국 1951년 4월 맥아더는 연합군 사령관 지위에서 해임되었다. ④ 1950년 1월 미국 국무 장관 애치슨은 중국과 소련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발표하였는데(애치슨 선언), 여기에서 한반도와 타이완이 제외되었다.

海東韓國史